

월간

공군



제554호 08

Contents

Republic of Korea Air Force Magazine

- 04 **지금 이 순간!**
공군 소식 & 참모총장 동정 & 부대 소식



- 18 **공군인이 들려주는 미술 이야기**
모든 사물의 마지막 상징적 모습,
숯의 화가 '이배'



- 12 **역사 속 공군 이야기**
광복과 함께 시작된 항공 건설의 노력:
조선항공협회

- 22 **Aero Detail**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Ⅳ: F-15

- 16 **이달의 공군史**
평양대포격작전



- 28 **항공우주박물관 답사기**
미국Ⅷ. 하와이



표 지(앞) 푸른 바다 위를 누비는 F-15K(상병 문준혁)
표 지(뒤) 성화를 봉송 중인 하늘이프렌즈(최수정 작가)
발 행 일 자 2024년 8월 1일(통권 제554호)
발 행 인 공군참모총장 대장 이영수
편 집 인 공군본부 정훈실장 대령 김권희
편 집 감 수 공군본부 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장 중령 김세현
기 획 · 편 집 공군본부 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 대위 서현욱, 중사 강지영
전 자 도 서 관 www.afzine.co.kr

디자인·인쇄 국방출판지원단(F24070332)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 및 인터뷰는 개인의 견해를 알려드립니다.

32 **특집**
공휴일: 공군과 함께하는 휴일 Ⅱ



42 **영화로운 나날**
픽사가 속편을 만들어야 했던 이유
「인사이드 아웃 1, 2」

44 **생각하는 그림**
불안한 날엔 힘껏 달려보기를

46 **공군인의 하루**
We go together! Remember together!
(공군작전사령부 인사운영처 대위 박지훈)

35 **책 읽는 공군**
역경은 ‘군필’ 모드리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제39비행단 정훈실 일병 류호진)

47 **마음의 소리**
독자 참여 코너

36 **한 달, 한 권**
『Y의 비극』,
‘세계 3대 미스터리’라는 빛나는 수식어

38 **식탁 위의 군대 이야기**
우유: 완전식품의 역사

40 **동서양 그랜드투어**
소설 『삼국지』에는 없는 군사들의 이야기
「적벽가」



월간
공군

대한민국 공군, 다국적 연합공중훈련 ‘피치 블랙’ 훈련 참가

대한민국 공군은 7월 12일(금) ~ 8월 2일(금), 호주 다윈(Darwin)기지에서 열리는 대규모 다국적 연합공중훈련 ‘2024 피치 블랙(Pitch Black)’ 훈련에 참가했다. 이번 훈련은 F-15K 6대와 100여 명의 우리 공군 병력이 참가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발전시켰다. 특히,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F-15K는 우리 공군의 다목적 급유기 KC-330의 공중급유를 받으며 기착 없이 호주 다윈기지에 도착했다. 이는 우리 공군의 급유를 받으며 무중단 페리(Ferry) 임무를 수행한 최초의 사례이다.



훈련 참가를 위해 이륙하고 있는 F-15K



페리 임무 중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로부터 공중급유 받고 있는 F-15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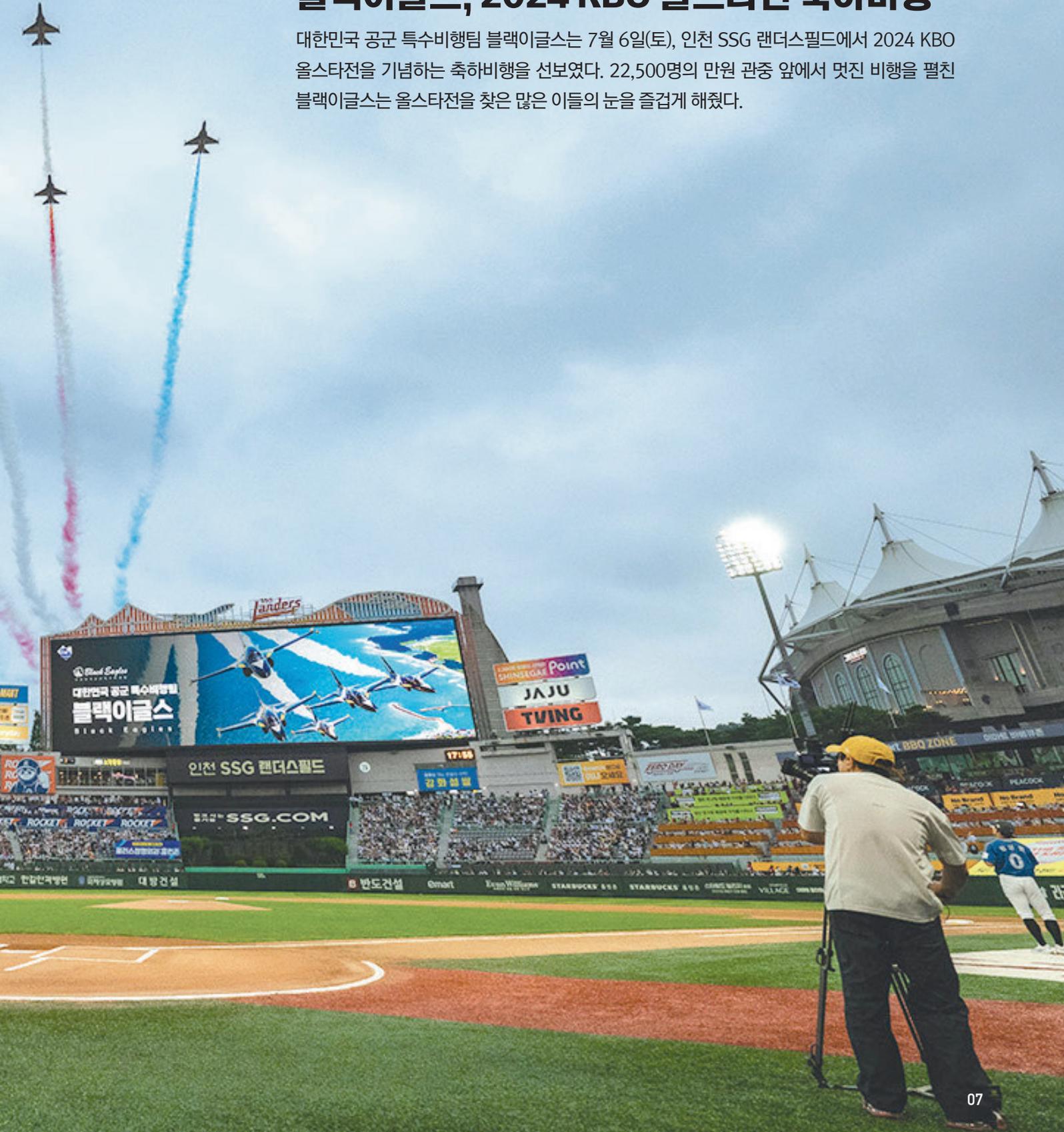
호주 다윈(Darwin)기지에 도착 후 실시한 기념 촬영





블랙이글스, 2024 KBO 올스타전 축하비행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7월 6일(토),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2024 KBO 올스타전을 기념하는 축하비행을 선보였다. 22,500명의 만원 관중 앞에서 멋진 비행을 펼친 블랙이글스는 올스타전을 찾은 많은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해줬다.





2024 국제 전자기전 콘퍼런스

이영수 참모총장은 7월 10일(수) 경기도 성남시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열린 2024 국제 전자기전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공군, 국방과학연구소(ADD), 국제전자전협회(AOC)가 공동 주관한 이번 콘퍼런스에는 각 분야의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미래전장을 주도하기 위한 전자기스펙트럼 우세 달성 전략’을 주제로 열린 토론을 펼쳤다. 참모총장은 축사를 통해 “첨단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자기스펙트럼은 이제 하나의 새로운 전장 영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콘퍼런스가 전자기전의 혁신적인 발전과 첨단 공군력 건설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기지 대비태세 현장지도



이영수 참모총장은 6월 28일(금) 감시정찰, 특수작전, 국외 평화작전 등 광범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해기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 전반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또한,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김해기지의 하계 재난대비 현장을 살펴보고, 기상이변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아울러, 호주 피치 블랙 훈련에 참가하는 KC-330 항공기와 요원들의 준비상태를 점검하며 성공적인 훈련 참가를 당부했다.

하늘사랑 아카데미 개최



이영수 참모총장은 6월 28일(금)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인 신성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24-5차 하늘사랑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신성호 교수는 '21세기 미·중 경쟁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전략적 외교와 글로벌 협력을 통해 한반도 안보확립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 대선 임박,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산과 더불어 북·러의 밀착 등 세계정세가 유례없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군이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군작전사령부

공군 우주작전전대 창설

공군은 6월 28일(금), 공군작전사령관 주관으로 공군 우주작전전대 창설식을 거행했다. 우주작전전대는 향후 전력화될 우주기상 예·경보체계와 초소형 위성 체계 등 우주전력을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우주작전전대는 우주 위험·위협대응능력과 킬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Korean Air and Missile Defense) 작전 수행 시 적 도발 원점 정보식별 능력을 더욱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교육사령부

제113기 준사관 임관식 거행

공군교육사령부는 6월 28일(금), 부대 내 강당인 최용덕관에서 공군교육사령관 주관으로 제113기 준사관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임관식을 통해 탄생한 227명의 준사관은 항공우주력 발전 비전과 MZ세대의 특성 이해를 통한 조직관리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공군의 핵심계층로서 갖춰야 할 필수 자질을 함양했다. 한편, 공군 여군 최초 일반특기 준사관이 된 김명희 준위와 고고도 무인정찰기(RQ-4B) 최초의 기체정비 준사관이 된 황영두 준위 등 다양한 준사관들의 특별한 사연이 눈길을 끌었다.



제3훈련비행단

전투지휘검열 실시

제3훈련비행단은 6월 24일(월) ~ 7월 4일(목), 공군 작전사령부가 주관하는 전투지휘검열을 실시했다. 공군의 비행단들은 전투지휘검열을 통해 전투준비 태세와 전·평시 임무수행 능력을 확인한다. 3훈비장병들은 전투지휘소연습을 비롯해 대테러 종합훈련, 재난통제훈련, 야간 기지방호 훈련 등 실질적이고 강도높은 훈련을 통해 다양한 적 도발 상황 발생 시 조치능력을 확인하며 군사대비태세 전반을 점검했다.



제5공중기동비행단

CCT-경찰특공대 대테러 합동 훈련 실시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7월 1일(월)~3일(수), 기지 내 종합훈련장에서 충남·부산·세종 경찰특공대와 대테러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5비 CCT와 경찰특공대는 총기 테러, 인질 협상, 부상 인질 구출 등 다양한 주·야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토의, 근접 전투 훈련, 통로 개척 훈련 등 실전적인 훈련을 실시하며 대테러 작전 수행능력 향상은 물론 전술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을 도모했다.



제20전투비행단

활주로 폐쇄 시 처리절차 훈련

제20전투비행단은 6월 27일(목), 부대 내 주기장에서 활주로 폐쇄 시 처리절차 훈련을 실시했다. 활주로 폐쇄는 항공기의 비정상 착륙 상황, 활주로 이탈, 활주로 피폭 등 비상상황에서 수행하는 절차이다. 이번 훈련은 항공기가 랜딩 기어 고장으로 활주로를 이탈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었으며, 20전비 훈련 요원들은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활주로 폐쇄 상황에 대한 임무수행절차를 숙달했다.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야간 수상수중 전투탐색구조훈련 실시

제6탐색구조비행전대는 7월 17일(수) 강릉 인근 동해 상에서 전술 임무 집중훈련을 연계한 야간 수상수중 전투탐색구조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항공구조사 (SART: Special Air Rescue Team) 15명과 HH-47, HH-60 등 탐색구조헬기 2대가 참가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평시 야간구조절차와 함께 전시 적지에 조난 당한 조종사를 구조하기 위한 침투절차 및 능력을 숙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역사 속 공군 이야기



광복과 함께 시작된 항공 건설의 노력: 조선항공협회

1945년 8월 15일 정오 연합군의 항복 요구를 수용한다는 라디오 방송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항복 소식을 알고 있는 조선인은 별로 많지 않았다. 광복의 소식은 오후 늦게서야 서울을 중심으로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다.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는 모습은 다음날에서야 나타났다.

광복의 들뜬 분위기가 여전히 어색했던 16일, 과거 조선국방항공단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조선항공대를 결성했다. 국내의 항공인들은 광복의 감격을 느끼자마자 항공 건설을 위한 노력을 전개했던 것이다. 조선항공대는 미군의 남한 진주 후 조선항공협회로 이름을 바꾸어 항공 건설의 활동을 이어나갔다.



“항공단체 통합, 조선항공협회 탄생”이라는 제목의 1945년 11월 2일자 『중앙신문』 기사



일본어 신문으로서 조선항공협회의 결성을 보도한 1945년 11월 3일자 『경성일보』

이 글은 2016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軍史』 제99호에 게재된 「1945~1948년 항공력 건설 노력과 그 의의」와 2020년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의 『石堂論叢』 제77집에 게재된 「미군정기 국내 항공단체의 ‘항공 건설’구상과 식민유산」의 두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조선항공협회는 공군 창설을 노골적으로 표명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공군 창설에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었다. 1945년 12월 조선항공협회가 홍보를 위해 간행한 「항공조선」의 머리말에는 다음의 구절이 있다.

“ 조국의 국토를 완전히 방비 옹호하자면 하루라도 급속히 항공시설 및 공군 양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함을 느끼는 바이다. ”

조선항공협회는 새롭게 세워질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공군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만들고자 했던 ‘공군’은 육군이나 해군 소속의 항공군이 아니라 독립된 공군이었다. 장덕창은 발간사에서 국가의 독립에는 항공의 독립이 절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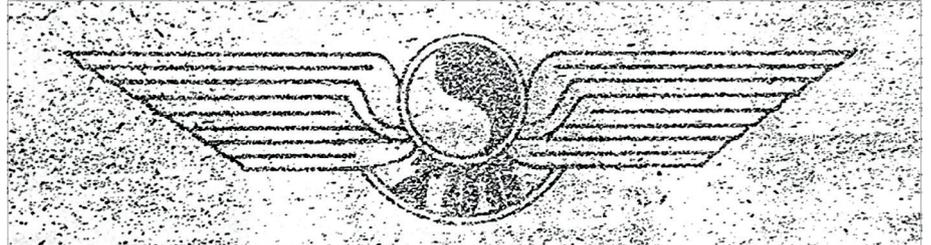
1946년 1월 1일, 광복 후 첫 새해를 맞아 『자유신문』은 국군의 창군이 어떠한 계획으로 진행될 것인지 특집을 마련했다. 여기에 국군은 육군과 해군, 그리고 공군의 세 병종으로 명시되었다. 공군편의 내용에는 조선항공협회의 구상이 상당히 반영되었다. 공군의 독립은 이미 해방 직후부터 다수에게 공유된 목표였다.

이들은 광복 직전에 있었던 도쿄대공습과 원자폭탄 투하 등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조선항공협회가 창설되기까지」를 썼던 이상목은 아예 평명을 원자탄으로 삼기도 했다. 이들은 공군이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 어떤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항공 건설은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했다.



『자유신문』의 특집 기사를 보면 국군의 구상은 육군과 해군, 공군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사가 게재된 1946년 1월 1일의 시점은 최용덕, 김정렬 등이 귀국하기 전이다.

조선항공협회는 항공력 건설의 필요성에 뚜렷한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해산된 뒤에도 여러 군소단체를 만들어 활동을 이어나갔다. 학생항공연맹이 개최했던 항공의 날 행사와 같은 가시적인 활동도 있었다. 역경에도 꺾이지 않은 마음은 이욱고 최용덕과 이영무 등 해외의 항공경력자들이 귀환했을 때, 한국항공건설협회로 다시 결집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조선항공협회는 여러 종류의 마크를 사용했는데, 대체로 태극 문양과 날개 형상을 결합한 형태였다. 여기에는 조선항공협회의 약자인 '조선(위)'나 'KAA(Korea Aviation Association, 아래)'를 적기도 했다. 흥미롭게도 영어 약자를 넣은 문양에는 미군정의 문장에 포함된 줄무늬 방패와 유사한 도안을 삽입했다.

공군의 창설에서 조선항공협회의 활동은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최용덕, 김정렬 등이 귀국하기 전에 펼쳐졌던 활동은 이른바 7인의 간부를 중심으로 창설 과정을 설명하는 경향에서 주목받기 어려웠다. 그러다 보니 공군의 창설을 위한 활동, 항공경력자들을 모으고, 책자를 간행해 그 필요성을 알리는 일 등이 7인의 회합 후에 시작되었던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렇지만 조선항공협회의 역사는 공군의 창설을 위한 활동이 특정 인물의 선견지명으로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대다수가 민간에서의 항공경력만 지녔던 조선항공협회의 구상은 아마추어 같을 수밖에 없었다. 항공경력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 일본군 출신들에 대한 인맥 역시 약했다. 중국 공군의 창설에 기여하고, 그곳에서 고위 간부까지 올랐던 최용덕이나 일본 육군의 항공장교였던 김정렬 등의 의의는 여기에서 두드러진다. 공군 창설이라는 모두의 염원은 전문 경력을 갖춘 군 출신을 중심으로 결집되어 실제 공군의 창설이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참고로 광복 직후 공군의 창설을 위한 노력은 조선항공협회에서만 나오지 않았다. 특히 1945년 말에 결성된 조선국군준비대는 공군부를 육군부 및 해군부와 별도로 편성하고서 윌로우스 비행학교 교관 출신인 노정민을 중심으로 공군 창설 활동을 펼쳤다. 이처럼 공군의 창설이라는 구상은 소수의 선각자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인식 속에서 피어났다. 

이달의 공군史

평양대폭격작전

(1952. 8. 29.)

대한민국 공군은 1949년 10월 1일, 그 힘찬 날갯짓을 시작한 이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75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많은 이들이 흘린 땀방울로 공군은 발전해올 수 있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발생한 많은 일들이 대한민국 공군 역사의 변곡점이 되며 현재의 공군을 만들어냈다. 「이달의 공군史」 코너에서는 매월 공군 역사의 변곡점이 된 사건들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평양대폭격작전

「이달의 공군史」에서 8월에 다룬 사건은 승호리 철교 차단 작전(1952. 1. 12. ~ 15.), 351고지전투 항공지원작전(1953. 3. 26.)과 함께 6·25 전쟁 중 우리 공군의 3대 전승 작전으로 일컬어지는 평양대폭격작전(1952. 8. 29.)이다. 이제 1952년 여름으로 떠나 3대 전승 작전 가운데 최대의 작전, 최대의 전과를 올린 작전으로 공군의 역사에 기록된 평양대폭격작전에 대해 알아보자.

1952년 여름, UN 공군은 평양대폭격작전을 준비한다. 당시 지지부진하던 휴전협상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UN 측에서 협상을 주도할 수 있는 국면을 만들기 위해 채택한 전략적 판단의 일환이었다. 병참시설, 군수산업시설 등 군사적 목표를 파괴하여 북한의 전쟁수행 능력과 의지를 말살하는 항공압박작전(Operation Pressure Pump)을 통해 UN 측의 협상안을 북한이 받아들일도록 하는 것이 이 작전의 최종적인 목표였다.

평양대폭격작전은 크게 세 차례에 걸친 공습으로 진행되었다. 7월 11일과 8월 4일에 각각 이루어진 제1, 2차 공습은 평양 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목표를 타격하여 큰 피해를 입혔다. 하지만 여전히 잔존해 있는 목표들을 파괴하기 위해 추가 공습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8월 29일 제3차



UN 공군의 폭격을 받고 화염에 휩싸인 평양지역 항공사진. 평양대폭격작전은 1952년 7월 11일부터 8월 29일까지 이어졌다.



평양 폭격 직전의 이륙 장면. 평양폭격작전에 참가하여 이륙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군의 F-51D 머스탱 편대의 모습. “평양 폭격 직전의 離陸 장면 29日”이라는 기록이 선명하다.

공습이 진행되는데, 이날 대한민국 공군은 美 제5공군으로부터 목표를 할당받아 출격에 나선다. 8월 29일, 우리 공군의 출격은 강릉기지를 거점으로 총 세 차례 이루어졌다. 강호륜, 전봉희, 오준목이 이끄는 3개의 편대군이 출격했는데, 각 편대군은 F-51D 12대로 구성되었다. 평양대폭격작전에서 우리 공군은 조종사 18명, F-51D 36대를 투입하여 평양 인근지역의 공장건물 9개 동을 파괴하고 10개 동에 피해를 입히는 전과를 올렸다.

대한민국 공군이 활약한 평양대폭격작전을 다룬 다양한 기사들을 통해 당시 작전에 대한 평가를 찾을 수 있다. ①번 기사는 평양대폭격작전에서 제1편대군을 지휘하며 선두에서 출격한 강호륜 중령을 소개하는 기사이다. 1953년 9월 3일 조선일보에 실린 해당 기사에서는 평양대폭격작전을 논하며 조종사로서 그동안 축적한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적의 군사시설을 여지없이 분쇄했던 소중한 계기로 평가하고 있다.

광복 10주년을 맞아 우리 군의 역사를 정리한 기사 속에서도 평양대폭격작전을 찾아볼 수 있다. ②번 기사에서는 “평양대폭격작전에 참가한 한국 공군의 활약은 한국 공군 최대의 작전이었고, 또한 여기서 최대의 전과를 올리어 참전 각국 비행사의 절찬을 받았다. 이즈음 공군 용사 중에는 100회 출격의 기록을 낸 조종사가 연달아 나와서 한국 공군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고 평양대폭격작전에 대해 논하며 평양대폭격작전이 가진 의의를 평하고 있다.



① 「미국의 비행훈장 등 수상, 『조선일보』, 1952.9.3., 2면

앞의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평양대폭격작전을 전후하여 대한민국 공군은 100회 출격을 달성한 조종사를 연달아 배출한다. ③번 『경향신문』 기사에서는 사진과 함께 장성태 소령, 현창진 중위, 박희곤 소위를 소개하며 북한 전 지역의 보급로 차단과 물자집적소 공격에 참여하였다는 점과 1952년 8월에 있었던 평양대폭격 시에도 참전하였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당시에도 높은 평가를 받은 평양대폭격작전은 대한민국 공군에게 임무 수행에 자신감을 부여하고, 공군의 잠재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후배 공군인들이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며 대한민국 공군 역사의 한 페이지를 멋지게 장식하고 있다. ■



② 「육군항공대로 출발, 『조선일보』, 1955.8.15., 7면

③ 「삼용사도 백회 출격 수립, 『경향신문』, 1953.1.23.



모든 사물의 마지막 상징적 모습, 숲의 화가 '이배'

된장과 간장을 담글 때, 아이가 태어난 집에 금줄을 뿔 때, 먹으로 동양화를 그릴 때 모두 사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숯'입니다. 「공군인이 들려주는 미술 이야기」에서 이번 8월호에 소개할 작가는 '숯'이라는 매체를 활용하여 예술 세계를 구축한 이배 작가입니다. 이배 작가는 6월호에 소개했던 김환기 작가와 같이 단색화 사조에 포함되면서도 우리에게 친숙한 숯을 작품에 활용하여 숯이 가진 에너지와 순수함, 그리고 본질을 보여주는 예술가입니다.

작가는 어떻게 숯이라는 매체를 처음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건 그에게 닥친 재정적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미술 교직 생활을 내려놓고, 파리로 넘어가 작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할 무렵 그는 어쩔 수 없는 재정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작은 물감 한 개가 수만 원을 호가했기 때문에 물감을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하기는 쉽지 않았고,

이러한 어려움에 빠진 작가에게 우연히 숯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물감보다 훨씬 저렴한 재료인 숯은 당시 그에게 작품을 제작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재료였고, 어려웠던 시기에 만난 숯은 그의 예술 탐구의 과정을 거쳐 그를 대표하는 재료로 거듭나게 됩니다.

작가에게 숯이란 모든 사물의 마지막 모습이자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즉, 숯은 현실성과 일상성에서 벗어나 본질만을 가진 순수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불을 붙여도 다시 타오를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을 다했을 때는 재로써 소멸의 단계에 이르는 순환과 반복의 세계를 가진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숯에 대한 그의 해석은 숯이라는 물질이 작가와 그의 예술관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감명을 줍니다.

숯이라는 것은 동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앞서 얘기했듯

이 숲은 우리 문화에 깊게 녹아들어 있고, 수묵과 서예의 세계에서도 숲과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작가는 숲이 가질 수 있는 의미를 고민함과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탄생한 작품이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유럽, 즉 서양의 세계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양’의 성격을 띤 숲이라는 매체로부터 탄생한 예술이 어떻게 하면 서양 세계에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오랜 고민의 결과로 서양의 방법론을 채택하게 됩니다.

작가는 ‘동양’의 숲을 ‘서양’의 캔버스에 짓이겨 바르며 마티에르(matière)¹⁾ 효과를 형성하는데, 여기서의 마티에르는 서양의 개념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통 서양의 마티에르는 표면 위에 겹쳐 칠해지며 캔버스 위로 튀어나오는 질감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그는 캔버스에 미디어(medium)²⁾을 발라 마치 한지에 먹물이 스며드는 것과 같이 숲가루가 캔버스 안으로 스며드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서양에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그가 속한 동양 문화의 정체성을 작품에 담으면서 서양의 관점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일종의 보편성을 지니기 위한 그의 노력은 현재의 ‘이배’를 만들어냈습니다.

“숲을 쓰면서 때때로 위로를 받아요. 일단 비사지 않고 연약한 물성이잖아요. 거기에서 풍성하고 화려하고 고귀한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역동성’을 지녔죠.”

이배 작가는 예술을 구성하는 3가지 요건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Esprit(영감과 정신), Attitude(태도와 자세), process(과정과 방법)인데요, 이 세 가지 요건은 예술가에게 있어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중요도가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먼저 근대미술 시기에는 수공업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예술가 또한 시대의 흐름을 따라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작업보다 보통 영



이배 개인전 ‘흐르는 전시’ 전경 중, 조현화랑 전시

감이 떠올랐을 때 작업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즉, Esprit(영감과 정신)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시대였습니다. 영감을 얻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방향의 시기를 거치기도 하며 작업물의 기복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미술은 이와는 조금 다른 특징이 존재합니다. 현대 사회는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가 이루어진 시기이기 때문에 작가는 예술가 또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작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작품의 질이 변동되지 않아야 하며, 완성된 작품들에서 작가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대미술은 비교적 근대미술 시기보다 process(과정과 방법)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 자체보다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가 예술가에게 중요해진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항상 인지하고 살아가는 이배 작가는 마치 우리가 회사에 출퇴근 하듯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관되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가 탐구하고자 하는 예술을 더 집요하게 파고들기 위해 그는 오늘도 작업실로 출근합니다.

“작품을 한다는 것은 늘 자기 허물을 벗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허물을 벗는 열망만이 자기를 새롭게 하는 일이라고 여긴다.”

1) 작품 자체 표면의 평활함과 울퉁불퉁한 질감 등 소재의 선택, 용법에 따라 창출한 표면 효과.
2) 예술 표현의 수단. 또는 그 수단에 사용되는 소재나 도구. 좁은 뜻으로는 아크릴의 보조제를 뜻함.

이배 작가의 고향은 청도였고 아버지는 농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배 역시 농부가 되길 바랐습니다. 비록 이배 작가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농부의 길을 걷진 않았지만, 아버지로부터 받은 가르침과 청도의 자연은 그의 작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농부가 땅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땅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림을 하나의 객체로써, 어떻게 하면 작품과 작가가 깊은 상호소통의 과정을 이뤄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작가의 사유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청도는 그가 예술을 접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었기에 그는 예술적 영감을 주변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흡수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노력은 추후 그의 예술적 원천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저는 예술이 여행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은 멀리 내보내고 멀리 저 밖에 있는 것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는 행위. 안과 밖을 연결하는 여행.”

이번 기고에서는 2000년대 전후로 그를 상징하고, 그의 작업 방식의 변화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작가의 작품 연작 2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Issu du feu

‘Issu du feu’ 시리즈의 제목인 ‘Issu du feu’는 ‘불로부터’라는 뜻의 프랑스어입니다. 불로부터 탄생한 숲이 가진 물성을 드러내는 작업입니다. 크게 평면 작업과 설치 작업으로 구분되는데, 평면 작업의 경우 숲 조각들을 캔버스에 이어 배치하고 사포로 숲의 표면을 연마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숲이 머금고 있는 광택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인데, 연마된 조각들은 본래 나무의 위치나 방향, 줄기인지



이배, Issu du feu, 2018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 제공)

뿌리인지에 따라 색이 달라집니다. 달라진 색들로 인해 관람자들은 감정이라는 것이 이렇게나 다양한 범위의 색을 담을 수 있는 색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도 합니다.

설치 작업의 경우 숲 조각들을 조립하여 노끈으로 묶는 과정을 거칩니다. 작가는 거대한 숲덩어리가 땅의 에너지나 대기의 에너지를 끌어모으기 위한 인간의 의지가 담겨있는 작업이라고 말하는데, 마치 숲이 땅과 하늘을 잇는 하나의 매개체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작업 과정에서 숲덩어리를 검정 노끈으로 묶는 것은 목탄으로 데생(dessin)을 하듯이 조각에서 하나의 회화성을 부여하기 위한 상징적 표현 방식입니다. 작가는 평면 작업과 비교하여 작품의 형식은 다르지만 ‘회화’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는 표현 방식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2. Brushstroke

‘Brushstroke’ 시리즈는 작가의 ‘신체성’을 기록한 연작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연작의 제목 그대로, 붓질이라는 행위가 작품의 핵심입니다. 작가는 숲가루를 물에 개어서 안료를 만든 뒤, 마치 서예를 연상시키듯이 붓을 이용하여 작품을 그려냅니다. 서예는 붓질을 통해 언어를 담고 있다면, 작가의 작품은 그의 움직임에 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배 작가는 최근에 붓질이라는 실질적 신체 행위를 넘어, 조각과 회화, 입체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형식을 해체하고 신체성을 다양한 형태로 선보이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개념을 하나의 카테고리에 국한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회화’를 떠올리면 평면 작업이 생각나고, ‘조각’을 생각하면 입체 작업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작가는 숲과 함께 이러한 관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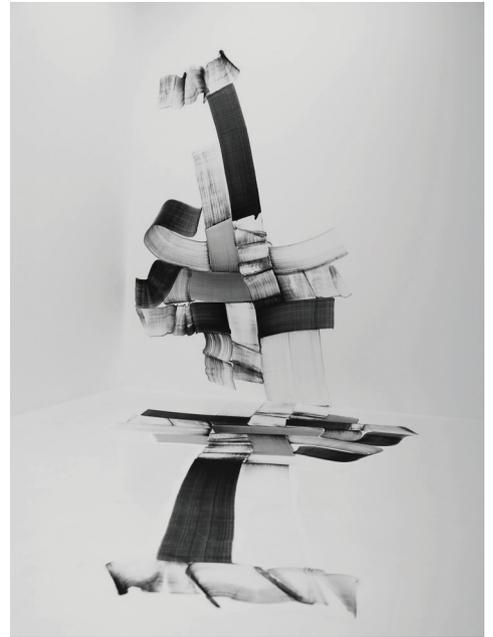
이배, Issu du feu, 2018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 제공)

에서 벗어나 움직임의 기록들을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하고자 실험적인 시도들을 진행합니다.

작가는 벽면과 바닥에 붓질함으로써 평면과 평면이 만나 입체를 이루는 작업을 행하기도 하고, 조각들을 겹쳐 만들어진 거대한 입체물은 다시 평면으로 해체되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한 연작 'Issu du feu'의 평면과 입체 작업 또한 작가가 범주화된 개념에서 벗어나고자 탐구해온 그의 철학을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대성(Contemporary)은 답이 아니에요. Contemporary는 수많은 의문을 가지고 여전히 실험하며 진행 중인 것이에요.”

어려웠던 시절 우연히 마주친 숲으로부터 시작된 여정이 그를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 중 한 명으로 만들기까지 그 누구보다 꾸준하고, 일관되게 작업해나가며 겸손과 절제를 겸비한 그의 예술관은 앞으로의 숲의 세계를 더욱 확장시키며 깊이를 더해나갈 것입니다. [📄](#)



이배, Brushstroke, 2024, charcoal ink on paper



이배, Brushstroke, 2024, charcoal ink on paper



이배, Brushstroke, 2024, Bronze, 150x160x265cm



이배, Brushstroke, 2024, Bronze, 150x160x265cm



글쓴이 상병 정육헌

前 Boutique Monaco Museum Curator, 前 PICKSGOOD Gallery Exhibition Manager, 前 Artslinker Curator. 입대 후 공군 본부 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에서 그래픽디자인병으로 복무하고 있다. 대표 기획 전시로는 '캠브란트-내면을 예칭하다 展, WHITE FUTURE-윤형재 展, Wave In Blue Island 展, 당신은 지금 어떻게 대화하고 있나요? 展' 등이 있다.

Aero Detail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IV: F-15

대한민국 공군 F-15K 도입 역사

대한민국 공군은 고성능 전투기 필요성에 따라 1990년대부터 합동전략목표기획서에 하이(high)급 전투기 소요 120대를 반영했다. 하이급 전투기 확보를 위해 차기 전투기(F-X) 사업을 시작했고, F-15K, 라팔, 유로파이터, Su-35 등의 전투기가 기종 선정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2002년 4월, 차기전투기 사업 기종으로 보잉사의 F-15K가 최종 선정되었고, 2005년 10월부터 제11전투비행단에 총 40대가 배치되었다. 이후 2차 사업으로 2008년 4월, F-15K 21대 추가도입 계약을 완료하고, 같은 비행단에 전력화되었다.

최강의 제공 전투기 F-15 이글

F-15 계열 전투기는 1970년대 이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 최강의 전투기 중 하나로 군림하고 있는 다목적 전투기다. F-15는 MiG-23, MiG-25, Su-15 등 구소련의 3세대 전투기를 제압하기 위해 당대 최고의 기술을 결집해 개발됐으며, 등장하자마자 기네스북의 각종 기록을 경신하는 등 성능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시제기인 YF-15A가 1972년 7월 27일에 첫 비행을 실시한 이래 F-15A/B형을 거쳐 지금은 F-15C/D형이 美 공군의 주력전투기로 활약하고 있다.

1979년에 등장한 F-15C/D형은 F-15A/B형과 비교하여 내부 전자장비가 교체됐고, 기내 연료 용량을 증대시켰으며, 동체 측면에 일체형 연료탱크를 장착해 무급유로 대서양 횡단이 가능하도록 개량됐다.



단좌형 F-15C 이글

스트라이크 이글로 진화

F-15는 보조 연료탱크 3개를 탑재하면 미국 대륙 횡단이 가능할 정도로 장거리 항속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항속능력과 무장 탑재능력을 활용해 공격능력을 강화한 파생형이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다. 1986년에 개발된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은 공기 흡입구 측면에 일체형 연료탱크와 3개의 보조 연료탱크, Mk-84급 폭탄 등 최대 11t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다.

F-15E는 F-15C의 공대공 능력을 유지하면서 공대지 능력을 강화시켜 개량한 전투기이다. F-15E 시제기는 F-15B 복좌형을 개조하여 만들어졌다. F-15E에는 각종 임무장비 조작을 위한 후방석이 신설됐다. 후방석에서는 레이더, 적외선 센서, 항공기 모니터링, 무장 현황 파악, 위협, 목표 선택, 항법용 전자지도 등에 필요한 다기능시현기를 조작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F-15E 스트라이크 이글

F-15E는 2개의 일체형 연료탱크를 동체에 부착할 수 있다. 이 연료탱크는 날개 아래에 탑재하는 기존 연료탱크에 비해 적은 항력증가로 항속거리를 연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체형 연료탱크에는 750gal(약 2,800L)의 연료가 들어가고, 외부 무장장착대 3곳이 2열로 배열되어 총 6곳에 무장장착이 가능하다.

일체형 연료탱크는 투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력과 무게가 늘어나 기동성능이 감소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스라엘 공군은 일체형 연료탱크를 공중우세 전투기형인 F-15A/B/C/D와 전폭기형 F-15I에도 탑재하지만, 美 공군은 F-15E 스트라이크 이글 계열에만 일체형 연료탱크를 탑재한다.

스트라이크 이글에는 레이더 경보장치, 레이더 재머 등이 TEWS(Tactical Electronic Warfare System) 전자전 장비에 통합되어 있다. 이 장비에 필요시 ALQ-131 전자전 포드를 추가할 수도 있다. 관성항법시스템은 레이저 자이로스코프를 사용하며, 항공기 위치를 항상 모니터링하여 중앙 컴퓨터와 전자지도 등 다른 시스템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스트라이크 이글의 AN/APG-70 레이더는 공대지 모드가 보다 강화됐다. 특히 기존 이글에 없던 합성 개구레이더 지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 장거리 지상표적 탐

지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 스트라이크 이글은 복좌형의 이점을 살려 후방석에서 지상 목표를 조준해 공대지 무장을 투하하고, 전방석에서는 공대공 목표를 탐지하고 교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美 공군은 F-15E에 탑재된 기존 기계식 AN/APG-70 레이더를 전자식 AN/APG-82(V)1 능동전자주사배열(AESA) 레이더로 교체하였다.

F-15E는 저고도 항법 및 정밀공격을 위한 LANTIRN(Low Altitude Navigation and Targeting Infrared for Night) 장비를 탑재했었다. 이 장비는 엔진 흡입구 아래에 장착되어 야간과 악기상에서도 저고도로 침투하여 지상 표적에 다양한 정밀무장 공격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AN/AAQ-13 항법 포드는 오른쪽 공기 흡입구 아래에 탑재된다. 항법 포드는 지형추적 레이더가 포함되어 있어 조종사가 전방 시현기의 표시를 보면서 안전하게 저고도로 비행할 수 있다. 이 장비는 자동조종장치와 연계되어 자동 지형추적 비행 능력도 제공한다. 항법 포드는 야간에 전방의 적외선 영상을 전방 시현기에 투영하여 조종사의 항법을 지원한다.

AN/AAQ-14 타게팅 포드는 레이저 지시기와 추적 시스템을 갖추어 16km 밖에 위치한 목표물을 조사할 수 있다. 추적이 시작되면 타깃 정보는 자동적으로 적외선 공대지 미사일 또는 레이저 유도폭탄에 전송된다. 타게팅 포드는 좌측 엔진 공기흡입구 아래에 탑재되며 AN/AAQ-28 라이트닝 또는 AN/AAQ-33 스나이퍼 포드도 타게팅 포드로 장착 가능하다.



랜턴 포드를 탑재한 F-15E

공대지 임무에서 F-15E는 美 공군이 보유한 대부분의 무장 탑재가 가능하다. 또한, AIM-9, AIM-7, AIM-120 공대공 미사일 탑재도 가능하다. 스트라이크 이글의 기총은

F-15C와 마찬가지로 20mm M61A1을 탑재한다. 데이터 링크는 BAE 시스템즈가 개발한 터미널을 사용하여 Link 16 망을 통해 전장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스트라이크 이글은 장거리 공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을 시작했지만 제공 전투기인 F-15C/D를 기본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무장을 전환하면 바로 제공 임무에도 투입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은 다목적 전투기의 대표적인 기종으로 뽑히고 있다.

F-15K 슬램 이글



F-15K 슬램 이글

F-15K는 F-15E 스트라이크 이글 계열의 파생형으로 대한민국 공군을 위하여 개발된 기종이다. 기본적인 성능은 F-15E와 유사하지만 다른 스트라이크 이글 계열과 비교해 발전된 성능을 가지고 있다.

F-15K와 기존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을 비교하면 기체 외형보다 내부에 탑재된 임무장비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레이더 측면에서 기존 F-15E는 AN/APG-70을 탑재하지만 F-15K는 AN/APG-63(V)1 레이더를 탑재한다. AN/APG-63(V)1은 제공형인 F-15C와 F-15E형의 레이더에 비해 신뢰도와 처리성능, 전자보호(EP) 성능, 공대지 성능이 크게 개선된 레이더이다. F-15K의 생존을 책임지는 통합 전자전 장비도 기존형보다 최신형이 탑재된다.

F-15K 슬램 이글에는 기존 장비의 개량형뿐만 아니라 스트라이크 이글에 없는 대한민국 공군을 위한 고유 장비도 탑재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AN/AAS-42 적외선 탐색추적기(IRST)이다. 적기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을 감지하는 적외선 탐색 추적기는 레이더 사용이 곤란한 상황에서 적기의 방향을 조종사에게 정확히 알려줄 수 있다. 또한, 2차 도입분은 표적획득을 위한 스나이퍼 포

드까지도 운용할 수 있다.

우수한 무장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존 스트라이크 이글의 장점은 F-15K에서도 이어진다. AGM-84H SLAM-ER 장거리 미사일과 AGM-84L 하푼 공대함 미사일 운용 능력은 특별히 F-15K를 위해 추가된 무장이다. AIM-9X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조종사가 시선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적기를 조준할 수 있는 헬멧 장착 조준기와 결합해 F-15K의 근접 공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

F-15K는 위에서 언급된 항전 장비와 무장측면에서 기존의 F-15E와 몇 가지 차이점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우수한 기체인 F-15E를 베이스로 탄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군이 원하는 요구성능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일부 성능에서는 요구치를 상회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공군의 F-15K는 핵심 타격전력으로 향후 주변국 전력에 대한 억지력을 제공할 것이며, 꾸준한 성능개량을 통해 21세기에 상당 기간 '최강의 전투폭격기' 지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F-15 실전 사례



이스라엘 F-15

이스라엘은 1975년에 25대의 F-15를 구매하면서 F-15의 첫 번째 도입국가가 되었다. 이스라엘은 6일 전쟁과 소모전, 4차 중동전을 거치면서 보유 전투기의 150대 이상이 손실됐다. 이 전투기들을 보충하고 F-4 전투기를 대체할 목적으로 F-15A/B형을 도입했다.

4차 중동전 이후 1980년 12월까지 이스라엘 공군 F-15A는 시리아의 MiG기 11대를 격추시켰고, 한 달 뒤에는 마하 3급의 고속 전투기인 MiG-25까지 격추시켰다. 당시

MiG-25는 베일에 감춰져 있는 비밀전투기로 성능이 과장되어 있었으며, F-15는 MiG-25를 격추시킨 최초의 전투기가 되었다.

이스라엘 공군은 도입한 모든 F-15에 자국에서 자체 생산한 일체형 연료탱크와 파이선 3/4 적외선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했다. 이스라엘 공군은 F-15를 히브리어로 Baz(Falcon, 매)라고 명명했다.

1981년에는 이라크 바그다드 근처 타무즈의 원자로를 공격하기 위해 8대의 F-15와 8대의 F-16이 투입됐다. 이 작전에서 F-15는 폭탄을 탑재한 F-16의 호위 임무를 수행했다. 당시 편대는 표적 근처까지 200ft 고도를 유지하고 F-16은 4,000ft로 급상승하면서 표적을 확인한 후, 2,000lb급의 Mk.84 2발(총 16발)을 투하했다. F-15는 F-16이 표적 지역에서 이탈할 때까지 20,000ft 고도에서 2대씩 분리하여 공중초계 임무를 수행했다.

1981년부터는 F-15C/D형이 도입됐다. 피스 팩스(Peace Fox) III 계획에 따라 1981년에는 18대의 F-15C Akev(Buzzard, 독수리)가 이스라엘에 인도됐고, 1982년에는 추가로 8대의 F-15D가 인도됐다. F-15D는 실전에서 거의 운용되지 않았으나, 1985년에 F-15D 8대가 튀니스에 있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막사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 공군의 F-15A/B/C/D는 1대의 F-15도 손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56대 이상의 시리아 전투기를 격추시켰다고 한다.

이스라엘은 1994년에 장거리·전천후 정밀 공격을 위한 F-15I 도입을 결정했다. F-15E 스트라이크 이글과 유사한 F-15I는 야간에도 고가치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기종이었다. 당시 기종 결정에는 F/A-18, F-16 등도 함께 경쟁했지만 이스라엘은 F-15I를 선정하고 최초 21대를 도입했다. 이후 4대의 F-15I가 1995년 11월에 추가로 인수됐다.

걸프전의 F-15

걸프전에서 F-15C와 F-15E는 8,000여 회의 출격에서 총 2,000,000lb의 미사일과 폭탄을 투하했다. 전투 손실은 총 2대였으나 95.5%의 가동률을 보여 생존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걸프전에서 F-15의 활약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 F-15C 24대가 1990년 7월 최초로 전개한 이후 총 118대의 F-15C가 배치됐다. F-15C는 이라크 공군기를 파괴하고 제압하는 전력으로 운용됐다. F-15C 전력은 미 공군 보유 항공기 중 거의 28%에 해당되며, 사막의 폭풍 작전 기간 동안 5,096회의 공세제공 및 방어제공 임무를 수행했다.

F-15C는 초기 공중작전에서 공중우세 임무를 담당했으며, 10일 이내에 제공권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F-15C는 전쟁 기간 동안 격추된 이라크기 38대 중에서 33대를 한 대의 손실도 없이 완벽히 격추하는 기록을 남겼다.

F-15E는 2개 대대 48대가 참전해 공대지 임무에서 랜턴 장비를 활용해 저고도 항법 및 주·야간 정밀공격을 실시했다. 또한, 공세 제공, 전략폭격 및 항공후방차단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유도 및 비유도 공대지 무기를 장착하여 운용되었다.

F-15E의 임무는 거의 대부분 야간에 수행됐고, F-15E의 임무 성공률은 85.9%를 기록했다. 특히 랜턴 포드는 야간에 목표물을 확인하고 동시에 레이저 유도폭탄으로 목표물을 파괴하는데 대단히 유용한 장비임이 입증됐다. F-15E는 총 2,210회의 실전 임무에서 랜턴 포드를 이용하여 1,700발의 GBU-10/12 레이저 유도폭탄을 투하했다. F-15E 2대가 각각 8발의 GBU-12를 장착하고, 단 한 번의 출격으로 16대의 장갑차를 파괴한 것은 지상군 지원을 위한 대전차 임무 수행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F-15E가 걸프전에서 가장 돋보이게 수행한 임무는 스커드 미사일 파괴였다. ‘스커드 헌팅 미션’에서 E-8 조인트 스타즈는 이동형 스커드 미사일 발사대를 감시하고, 발견 시 위치 정보를 F-15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E-8로부터 스커드 미사일의 위치 정보를 전달받으면 신속히 F-15E 2기 편대는 스커드가 위치한 지역으로 이동했다. 목표 상공에 도착한 F-15E는 랜턴 포드를 이용해 목표를 발견해 식별하고, 직접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개전 직후 10일 동안 하루에 5발 정도가 발사되던 스커드 미사일은 F-15E가 스커드 헌팅 미션에 투입되자 하루

에 1발 정도로 현저하게 줄어들게 됐다.

F-15E가 수행해 낸 또 하나의 훌륭한 임무는 2월 26일 이른 아침에 이루어졌다. 다국적군의 맹공으로 고립화되어 가고 있던 쿠웨이트 주둔 이라크 지상군은 약탈한 물자를 주행 가능한 모든 차량에 적재하고 이라크의 바스라-바그다드 4차선 고속도로를 가득 채운 채 달리고 있었다. E-8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F-15E 6개 편대는 고속도로의 시작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공격을 퍼부어 도로 위의 이라크군을 궤멸시켰다. 이 작전에서 1,000여 대의 전차, 트럭, 기타 차량을 파괴했고, 다수의 이라크군 사상자를 냈다. 이후 이라크군은 이 사건을 ‘죽음의 고속도로’라고 부르기도 했다. 전쟁이 끝나기 며칠 전 F-15E를 운용한 제335비행대는 478개의 포대를 공격해 파괴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F-15E의 공격은 대부분 야간에 실시됐는데, 야간 공격의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최신 장비였던 랜턴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걸프전 기간 동안 기록한 전투 손실은 2대에 불과하며 1월 18일과 1월 20일에 발생한 사건으로, 탑승원 4명 중 1명은 사망했고, 나머지 3명은 이라크 측 포로가 되었다가 3월 중순 미국으로 귀환했다.



걸프전 당시 F-15E

걸프전 이후의 F-15 실전 사례

연합군이 1991년 중반부터 시작한 ‘프로바이드 콤포트(Provide Comfort)’ 작전은 북부 이라크의 쿠르드족을 위한 작전이었다. F-15E는 1991년 7월까지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한 감시 비행을 실시했다. 1996년부터 작전명은 ‘이라크 북부 감시’ 작전으로 대체됐다.

감시 작전 시 F-15는 터키의 공군기지에 주둔하고 있었다. 2003년 감시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F-15는 북위 36도 북쪽 지역의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초계비행을 실시했다. 남부 감시 작전은 북위 32도 남쪽의 비행금지구역과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의 비행완충지역을 통제하기 위해 1992년 시작됐다. 남부 감시 작전을 위해 F-15C와 F-15E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기지에 주둔했다. 보스니아전에서는 UN과 NATO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본토와 이탈리아 아비아노 공군기지에 배치되었던 F-15가 투입됐다. F-15C는 사라예보 지역에 배치된 NATO 지상군을 보호하기 위해 공중전투초계(CAP: Combat Air Patrol) 비행을 실시했고, F-15E는 1994년 10월, 2개소의 SA-2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여 파괴했다.

1995년 8월부터 F-15E는 방공기지에 대한 공격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1998년 실시된 연합작전에서는 F-15C 편대가 AIM-120 암람 미사일을 발사하여 우고슬라비아 공군의 MiG-29 4대를 격추시키기도 했다.

2001년 9월, 9·11 테러 후 항구적 자유(Enduring Freedom) 작전과 미국 본토 수호작전이 개시됐다. F-15C와 F-15E 전투기들은 본토 수호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공중전투초계 비행을 실시하였으며, 마운틴 홈 공군기지의 제366해외원정비행단 소속의 F-15E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 축출을 위해 쿠웨이트로 전개했다.

F-15E는 지상 고정, 방공표적에 대한 공격이 완료된 후 근접항공지원이나 시한성 긴급표적 공격임무(TST: Time-Sensitive Tasking)를 위해 투입됐다. 조종사들은 근접항공지원과 시한성 표적 공격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설정된 구역인 ‘킬 박스’ 상공을 비행했다.

F-15는 임무 시에 E-3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E-8 조인트스타즈, RC-135 전자정찰기로부터 표적 자료를 제공받았다. F-15는 외부로부터 데이터링크를 사용해 정보를 입수했는데, F-15에 탑재된 전투기 데이터링크는 이때 처음 실전에서 사용됐다. 제391전투비행대의 한 조종사는 9시간의 표적 상공 비행을 포함하여 15시간 30분의 최장기 비행시간을 기록하기도 했다.

2003년, 세이모어 존슨 기지의 제4전투비행단은 걸프 지

역에 두 번째로 파병됐다. 2003년 1월, 카타르의 공군기지에 24대의 F-15E가 최초로 배치됐고, 3월에는 24대가 추가 배치됐다. F-15C는 제공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지역의 기지에 분산 배치됐다.

F-15E는 이라크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임무를 수행했고, 근접항공지원 임무와 합동 공격 및 정찰 임무도 수행했다. 합동 공격 및 정찰 임무는 다수 표적을 발견하거나, 이동하는 표적에 대한 공격 시 운용되는 시한성 긴급표적 공격 임무에 필수적인 능력이다. 근접항공지원 임무는 북부지역에서 특수전 부대 지원 시 주로 사용되었으며, 제335전투비행대의 F-15E 전투기 1대는 근접항공지원 임무 수행 중 추락하기도 했다.



이라크전 당시 F-15E

F-15EX 이글II와 F-15K 성능개량

F-15K 전력화 이후 2010년대에 들어서자 F-15 어드밴스드 이글 계열 기체가 등장했다. 2013년에 처음 비행한 사우디아라비아 F-15SA와 2020년에 처음 비행한 카타르 F-15QA는 대표적인 어드밴스드 이글 기종에 해당한다. 美 공군은 F-15QA를 기반으로 개량한 F-15EX 이글 II를 기존 F-15C/D 대체 기종으로 결정하고, 2020년 7월 보잉사와 첫 계약을 맺었다.

F-15EX의 가장 큰 특징은 비행제어와 임무 그리고 무장체계다. 비행제어는 기존 하이브리드 방식에서 전자식비행제어(Fly-By-Wire) 체계로 바뀌어 기동성능이 향상되었다. 레이더는 전자식 AN/APG-82(V)1을 사용하고, 적외선 센서로 AN/ASG-34 리전 포드를 탑재한다. 전자전체계도 기존 전술전자전체계(TEWS)에서 AN/ALQ-250 EPAWSS(Eagle Passive/Active Warning and Survivability System)로 바뀌어 위협의 전반적인 탐지, 식별, 대응능력이 우수해졌다. 조종석에는 신형 임무 컴퓨터와 대화면시현기도 추가되었다. 기존 이글 계열에서 사용이 불가능했던 주익 외측에 무장 장착도 가능하며, AIM-120 암람 공대공 미사일은 최대 12발까지, 공대지 임무 시 최대 29,500lb의 외부 연료 및 무장 탑재가 가능하다.

방위사업청은 기존 F-15K를 F-15EX에 준하는 수준으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F-15K 성능개량 사업은 2024년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국외구매를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전자식 레이더, 대화면시현기 등을 장착하여 F-15K의 능력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향후, 대한민국 공군의 F-15K는 성능개량 사업을 통해 신속·정확한 표적식별과 타격 능력 향상, 안정된 운영 여건을 마련하여, 본래 장점인 장거리 임무능력과 무장 탑재능력을 더 효과적으로 발휘해 영공방위의 핵심전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우디아라비아 F-15SA



임상민 박사

한국항공대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연구 및 개발을 맡았으며, 현재는 방위사업청 항공분야 전문관으로 항공무기 획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투기의 이해』, 『항공기 체계 효과도의 이해』 등 8권 저술, 1993년부터 항공/군사지, 항공/군사학회 등에 수백여 편의 원고 및 논문을 기고했다.



미국 VIII. 하와이

하와이는 최근 한국인들에게 신희여행지나 휴양지로 떠오르고 있다. 면적은 한국의 1/3 크기인 28,311km², 인구는 146만 명 수준이다. 하와이에 위치한 진주만은 태평양 전쟁기념관, 애리조나호 추모관, 미주리호 박물관, 잠수함박물관, 항공박물관 등 많은 군사유적이 보존되어있어 국가역사지구로 지정되었다. 와이키키 해변의 육군박물관 역시 하와이 군사역사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또한, 이 섬은 1903년 1월 13일, 102명의 한국인이 이주한 곳으로 해외 이민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하와이 시내와 해변 전경

안보체험 교육장으로 조성된 진주만 역사지구

미국인들에게 뼈아픈 전쟁의 역사가 남아있는 진주만은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의 불꽃이 제일 먼저 타올랐던 곳이다. 미국 정부는 이곳을 진주만 역사지구(Pearl Harbor Historical site)로 지정하며 국가 역사지구로 관리하고 있다. 아침 일찍 역사유적지 정문에 도착했지만, 이미 많은 관람객이 입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적지에 들어서는 순간 “성조기여 영원하여라!”라는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진다. 역사지구 유적지는 정문 부근의 태평양 전쟁기념관과 잠수함박물관, 바다 위의 애리조나호 추모관, 건너편 포드 섬의 항공역사박물관과 미주리함, 이렇게 3가지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진주만 역사지구의 각종 기념석

'그날의 비극!'을 재현한 태평양전쟁기념관과 잠수함박물관

일본군 기습으로 시작된 태평양전쟁 첫날 모습을 기념관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1941년 12월 7일 07:50, 진주만은 일요일 아침 평온 속에 잠겨 있었다. 일본군 항공대 지휘관 마츠오 중좌는 공격 편대군을 돌아보았다. 97식 함상 공격기 48대, 뇌격기 40대, 99식 함상 폭격기 51대, 그리고 머리 위에는 43대의 제로센 전투기가 폭음을 울리고 있었다. 마츠오는 진주만의 美 함정들을 보고서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수백 대의 일본군 항공기가 함정 위를 날고 있지만, 수병들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7척의 거대한 전함은 포드 섬에, 반대편에는 순양함 9척과 구축함 29척이 정박하고 있었다. 8km² 가 채 되지 않는 좁은 수역에 함정은 모두 94척. 그는 ‘전원 공격하라!’라는 짧은 지시를 내리고, 목표함정을 향해 기수를 내리꽂았다. 그리고 08:52분, 제2파 공격대인 81대의 급강하폭격기와 36대의 제로센 전투기가 육상목표물을 박살냈다. 마츠오 중좌가 대본영에 날린 최종 무전은 “도라, 도라, 도라(호랑이, 호랑이, 호랑이), 즉 우리는 성공했다!”였다. 진주만 기습으로 미군은 전사 2,403명, 부상 1,178명의 인적 피해와 군함 18척, 항공기 314대의 물적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일본군은 항공기 29대, 잠항정 5척, 잠수함 1척을 잃었을 뿐이다. 태평양 전쟁기념관과 함께 역사지구 부두에는 잠수함박물관도 있었다. 박물관 주변에는 바닷속으로 사라진 모든 잠수함 역사를 기록한 추모 동판이 줄지어 있었다.



침몰하는 美 함정 모습



잠수함박물관과 침몰 함정 기념석

애리조나호 추모기념관

전쟁영화 「도라 도라 도라」에서는 애리조나호의 침몰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된다. ‘일곱 발의 어뢰를 맞은 대형 전함 애리조나호는 전복됐다. 1,500명의 승조원 중 1,000여 명이 선체에 갇혔다. 차오르는 바닷물 속에서 장병들은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두꺼운 철판을 뚫을 수 없었다.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던 승조원 대부분은 익사했고, 전함은 수장되고 말았다.’ 1966년 10월 15일, 전사자 시신이 남아있는 애리조나호 위에 추모기념관이 들어섰다. 소형함정을 타고 건너간 기념관에는 전몰장병 명단이 대리석 벽면에 빼곡히 새겨져 있다.



애리조나호 추모기념관

항공역사박물관이 말해주는 영화 '진주만'

태평양전쟁기념관에서 셔틀버스로 포드 섬에 건너가면 폐기된 비행장이 나타난다. 알록달록한 색상의 관제탑은 영화 「진주만」에서 보았던 눈에 익은 건물이다. 美 공군 정비부사관이 기관총으로 일본군 항공기와 필사적인 대결을 했던 영화 속의 바로 그 장소다. 2개의 대형격납고를 활용한 항공박물관은 수십 대의 1940년대 항공기가 전시되어 있다. 특히 태평양전쟁 당시의 美·日 전투기 성능 비교는 흥미로웠다. “일본 제로센 함상 전투기는 전쟁 초기 불패의 항공기였다. 조종성이 뛰어난 이 전투기는 조종사 보호 장갑판과 연료탱크 자동방류장치 대신 뛰어난 속도와 항속거리를 선택했고 이는 미군기를 압도했다. 하지만 미국은 노획한 제로센 전투기를 신속하게 분석하여 더 성능이 뛰어난 신형항공기를 생산해냈다. 기동성·내구성·화력에서 우세한 F4U 코르세어, F6F 헬캣 등 미군 신형기가 나타나자 제로센 전투기는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라고 미국과 일본의 항공기를 상세하게 비교·분석했다. 영화 「진주만」의 주인공으로 묘사된 2명의 파일럿인 테일러와 웰츠(Ken Taylor, George Welch) 이야기도 일부는 실화였다. 진주만 전투 당시 2대의 P-40 미군기가 기적적으로 출격하여 일본군 항공기에 대적했다는 이야기이다. 테일러 중위는 전날 파티에서 입었던 턱시도(Tuxedo)를 조종복으로 갈아입지도 못하고 출격했다. 주인공 조종사들이 훗날 두리틀 폭격기 편대의 도쿄 공습작전에 참여하는 줄거리는 허구였다. 테일러와 웰츠는 이런 영웅적인 행동을 인정받아 1942년 美 은성무공훈장을 받았다.



영화 「진주만」 촬영지의 관제탑



진주만 항공역사박물관 전경



일본군 제로센 전투기 모습



진주만 사건 당시 미군 폭격기 모습

미주리호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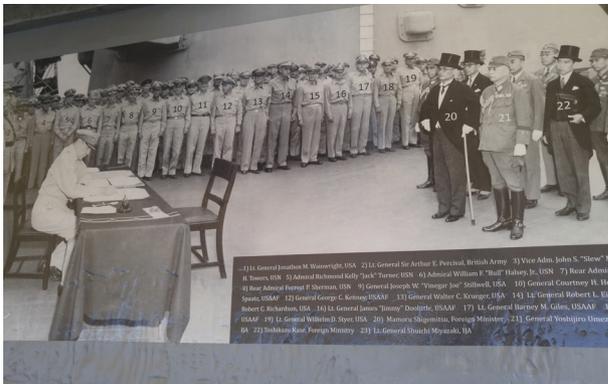
포드 섬 항공역사박물관 옆에는 역전의 전함 미주리호가 박물관으로 변신하여 조용히 누워있다. 이 함정은 1944년 6월 11일에 취역하여 태평양 전선에 투입됐다. 미주리호는 이오지마·오키나와·필리핀전투를 거쳐, 일본의 심장부인 도쿄만으로 입성했다. 1945년 9월 2일, 미주리 함상에서 일본이 항복문서에 서명하면서 태평양전쟁은 막을 내렸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또다시 한국으로 출격한 미주리호는 16인치 함포 3문으로 청진·홍남·원산을 맹폭하여 북한군 보급선을 끊었다. 1955년 퇴역한 미주리호는 1998년에 박물관으로 변신한다. 선상에는 의외로 한국인 가족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이 이외에도 관광명소 와이키키 해변 주변에 위치한 육군박물관 역시 군사유적으로 보존되고 있다. 또한, 하와이에는 한인 최초교회, 이민자 농장마을 등 우리 역사와 관련된 유적지도 일부 남아있었다. 하와이는 아름다운 경관 뒤에 많은 역사를 간직한 특별한 섬이라는 생각을 했다. 



미주리호 함상박물관 입구



미주리호 갑판과 함포 전경



1945년 미주리호 함상에서 실시된 항복조인식



하와이 한인 이민자 농장의 장승 모습



신중태 교수

2010년 국내 최초로 충남대에서 군사학박사를 취득했다. 충남대·국군간호사·조선대에서 전장사를 강의하면서, 세계 60여 개국의 군사 박물관과 전쟁유적지를 답사했다. 현재도 계속 답사여행을 하면서 『세계의 전쟁유적지를 찾아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空休日

공휴일: 공군과 함께하는 휴일 II

무더운 여름을 지혜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일하는 것만큼이나 잘 쉬며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름을 맞아 월간 『공군』 편집실에서는 각 부대에서 추천한 부대 인근 명소를 특집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의 동부 지역에 이어 서부 지역인 광주, 수원, 성남, 청주, 충주, 서산기지 인근의 명소를 알아볼 예정이다. 그럼 공군과 함께하는 휴일을 위해 지금 떠나보자.

광주 공군기지



도심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광주 공군기지 인근에는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어주는 아름다운 곳이 있다. 바로 사직공원이다. 현재 사직공원이 위치한 터는 원래 사직단이 위치한 곳으로 사직단은 삼국시대부터 나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땅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곳을 말한다.

해발 100m 정도의 언덕을 공원으로 조성한 사직공원의 꼭대기에는 높이 34.7m의 전망 타워가 있다. 공원 산책로의 종착지인 이곳에서는 광주 시내의 모습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사직공원의 산책로는 전 구역이 조명·영상·음악이 어우러진 복합 미디어아트 체험 현장이기도 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원이 은하수가 되어 공원에 내려앉아 빛의 숲이 되었다는 낭만적인 스토리를 간직한 사직공원은 광주가 가진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명소이다.



사직공원 (출처: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https://korean.visitkorea.or.kr>)



사직공원 전망대 (출처: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https://korean.visitkorea.or.kr>)

수원 공군기지



많은 이들이 수원 하면 떠올리는 곳은 바로 ‘화성’일 것이다. 특히, 화성은 조선의 중흥 군주로 알려진 정조 때에 축조된 성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정조는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묘, 현릉원을 참배하기 위해 수원에 머무르곤 했다. 정조가 화성에 행차했을 때 머물던 행궁이 바로 화성행궁이다. 화성행궁은 야간에 특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5월 3일부터 10월 27일까지 화성행궁은 야간 개장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야간 개장에서는 일제강점기에 훼손되었던 화성 행궁의 객사 우화관(于華館)과 왕의 행차 때 음식을 준비하는 관아인 별주(別廚)가 복원되어 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한다.



화성행궁 좌익문 (출처: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https://korean.visitkore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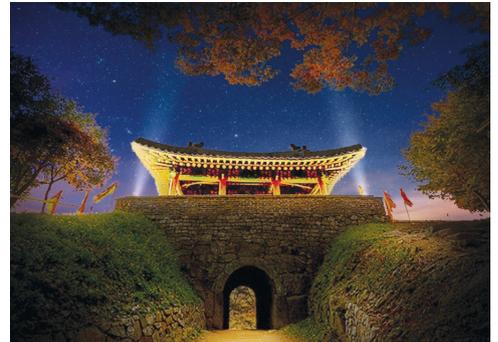


화성행궁 달 조형물 (출처: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https://korean.visitkorea.or.kr>)

서울 공군기지



서울 공군기지 인근에는 우리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남한산성이 있다. 대한민국 사적 제57호로 등록된 남한산성은 1625년(인조 3년) 현재의 모습으로 축조되었다. 남한산성의 아픈 역사는 163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을 침략한 청에 맞서 최후까지 항전한 장소가 남한산성이다. 비록 강화도의 함락, 성 내 물자 고갈 등 복합적인 이유로 남한산성에서 응전하던 인조는 청에 항복해야 했지만 남한산성은 청군의 홍이포 공격에도 40일 넘게 버텼다. 해당 이야기는 후대에 소설, 영화 등 다양한 장르로 재생산되었는데 남한산성 자락을 걷다 보면 영화 「남한산성」의 장면들을 떠올릴 수 있어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남한산성 야간 (출처: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https://korean.visitkorea.or.kr>)

청주 공군기지



충청도 제2의 도시인 청주에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도시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명소들이 존재한다. 특히, 남쪽에 있는 청와대라는 의미를 가진 청남대는 전두환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까지 약 20년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전용으로 이용하였던 별장이다. 수려한 경관과 맑은 공기를 자랑하는 청남대는 2003년부터 민간에 개방되었다. 대청호, 메타세콰이어 데크 등 아름다운 자연을 눈에 담을 수 있는 청남대는 청주의 대표 명소이다.



청남대 (출처: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https://korean.visitkorea.or.kr>)

충주 공군기지



충주 공군기지 인근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유일한 고구려비를 만날 수 있다. 중원고구려비라고도 불리는 충주 고구려비이다. 충주고구려비는 5세기 장수왕 때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고구려의 남진과 신라와의 관계를 알려주는 중요한 사료이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충주고구려비는 국보 제205호로 지정되어 있다. 충주고구려비와 함께 조성된 전시관에서는 충주고구려비 4면의 탁본, 중국 지린성에 위치한 광개토태왕릉비의 탁본, 장군총 모형을 함께 만나볼 수 있으며 전시관 외부에서는 고구려의 상징인 삼족오(三足烏) 모형을 견학할 수 있다.



충주고구려비를 견학 중인 공군 장병



서산 공군기지



해미읍성 (출처: 서산시청 서산 사진관)



공군의 창끝 부대인 공군 서산기지가 위치한 서산에는 '9경'이 있다고 한다. 이들 중 해미읍성과 간월암은 서산에서 꼭 가 봐야 할 명소로 꼽히고 있다. 해미읍성은 1,800m의 성곽으로 둘러싸인 읍성이다. 조선시대의 석성인 해미읍성은 과거 왜구의 서해안 침입을 막는 역할을 했다. 보존이 잘 되어 있어 대한민국 3대 읍성 중 하나로 알려져있다. 또한, 조선 후기 천주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난 장소로 천주교 신자들에게 성지로 불리고 있으며 2014년, 교황 프란치스코가 직접 이곳에 방문하기도 했다. 또 다른 명소인 간월암은 조선 초 무학대사가 창건했고, 송만공 대사가 준공했다고 알려져있다. 썰물 때 육지와 연결되고, 밀물 때는 섬이 되는 신비로운 암자로, 섬이 되어 물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느껴지는 간월암은 서산의 대표적인 명소이다. 



간월암 (출처: 서산시청 서산 사진관)

책 읽는 공군 역경은 '군필' 모드리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일병 류호진

“편식을 싫어하는 편식 독서쟁이”

지난 7월, 유럽 최대 규모의 축구대회 '유로 2024'가 막을 내렸다. 많은 국가들이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대회 내내 나의 시선은 16강조차 진출하지 못한 한 선수에게 쏠렸다. 바로 크로아티아와 세계적인 클럽 레알 마드리드의 전설, 루카 모드리치이다. 최근 나는 우연히 그가 군복을 입고 있는 사진을 발견했다. 모드리치가 군복이라니. 그 궁금증 하나가 나를 그의 자서전으로 이끌었다.

'역경'은 그의 유년기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일 것이다. 크로아티아 크라바르티리치란 시골에서 태어난 모드리치는 재봉사 어머니와 정비공 아버지 사이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어린 그에게 특별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의 친할아버지이자 손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선물한 루카 모드리치였다. 맞벌이 부모님을 둔 모드리치는 유년기의 많은 시간을 할아버지와 보냈다. 할아버지는 그에게 둘도 없는 친구였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당시 크로아티아가 위치한 발칸 반도는 국가 간 갈등으로 폭발 직전의 상황이었다. 그 가운데 농장에 있던 할아버지가 기관총에 맞고 살해되었다. 이후 전쟁이 발발하고 모드리치의 아버지는 공군 정비사로 입대한다. 어린 모드리치는 그렇게 또다시 가족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진다.

크로아티아와 레알 마드리드의 주장, 월드컵에서 활약한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골든볼과 한 해 최고의 축구 선수에게 주어지는 발롱도르의 수상자. 그가 얻은 모든 명예 뒤에는 이처럼 유년 시절 겪어야 했던 전쟁의 아픔과 많은 사연이 존재한다. 그뿐만 아니라 한때 그는 왜소한 체격으로 인해 감독에게 기용되지 못하는 시절도 겪어야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프로 커리어에 치명적일 수 있는 1년 동안의 군 복무를 해야만 했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그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도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책에서 모드리치는 자신의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했던 것을 '겸손'과 '목표 전념'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영국에서 스페인으로 등지를 옮길 때, 겸손함을 잃을까 스스로를 경계했다고 한다. 온전히 자신의 목표에만 집중하고 전진하며 오직 자신이 사랑한 축구에만 전념한 것이다. 그래서 모드리치는 남들의 비판에도 강한 정신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안타깝게도 책에서 그는 군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언급하진 않았다. 프로 축구선수는 1년 복무라는 법이 있어 운 좋게 짧은 군 생활을 했다는 말이 전부이다. 하지만 나는 그가 군 생활을 통해 더욱 강해졌다고 확신한다. 지금 이 글을 읽는 공군인들 모두 '군필' 모드리치를 기억하자. 군 생활을 한 후에도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를 생각하며 '겸손'과 '목표 전념'의 마음으로 생활해 나가보자. 우리 모두 분명히 '군 복무'라는 인생의 변곡점 끝에서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 스스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루카 모드리치 자서전」
루카 모드리치 지음 | 한스미디어 펴냄

한 달, 한 권

『Y의 비극』, ‘세계 3대 미스터리’라는 빛나는 수식어



윤영천 작가

미스터리 애호가이자 독자/기획자/편집자/저자. 1999년부터 미스터리(mystery·추리) 소설을 소개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하우미스터리(howmystery.com)를 만들어 20년 넘게 운영 중이다. ‘셜록 홈즈 걸작선’, ‘브라운 신부 시리즈’, ‘레이먼드 찬들러 전집’ ‘긴다이치 코스케 시리즈’, ‘엘러리 퀸 컬렉션’을 비롯해 수십 종의 미스터리를 기획·편집했다. 저서로는 『탐정사전』, 『미스터리 가이드북』 등이 있다.

미스터리 소설에 큰 관심이 없더라도, ‘세계 3대 미스터리’라는 말은 들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세계 3대 관광지’, ‘세계 3대 진미’처럼 ‘세계 3대’는 매우 솔깃한 수식어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세계 3대’를 평가하는 공인 기관이 있을 리 없으니, 객관적인 사실이라기보다 호사가들의 그럴듯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사정이야 어떻든 이 ‘세계 3대’ 작품들은 꽤 오랫동안 미스터리 장르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안내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작품은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가장 유력한 설은 1975년에 『주간 요미우리』라는 주간지에서 진행된 설문 조사라는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많은 수인 500여 명의 독자들이 참여해 일본의 입장에서 외국 미스터리 소설을 평가하고 20위까지 순위를 매겼습니다. 엘러리 퀸의 『Y의 비극』(1932년)이 1위, 애거사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1939년)가 2위, 그리고 코넬 올리치의 『환상의 여인』(1942년)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이 세 작품들이 한데 묶여 ‘세계 3대 미스터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 작품들은 미스터리 소설의 ‘고전’인 너무 오래된 작품들입니다. 미스터리 장르에서 ‘고전’은 주로 황금기(세계 1, 2차 대전을 전후한 시기) 작품들을 가리킵니다. 모두 발표된 지 70년 이상이 지났고, 이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작품이 출간됐으니, ‘세계 3대’라는 수식어에 그렇게 어울린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언하건대 세 작품 모두 현대에 읽을 만한 분명한 가치가 있는 작품들입니다. 모두 미스터리 장르의 고유한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고, 현대의 범죄소설에까지 다양한 영감을 불어넣은 작품들입니다.

세 편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작품은 설문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Y의 비극』입니다. 미국 ‘고전 미스터리’를 대표하는 엘러리 퀸이 ‘바너비 로스’라는 필명으로 당시 비밀스레 발표한 작품입니다. ‘엘러리 퀸’이라는 이름은 만프레드리와 프레더릭 다네이, 두 사촌 형제가 사용하는 필명이자 작품 속에 등장하는 탐정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것 역시 비밀이어서 작가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사촌 형제가 각각 ‘엘러리 퀸’과 ‘바너비 로스’ 역할을 담당하며 서로의 작품을 헐뜯기도 했다고 합니다.

『Y의 비극』은 흔히 ‘비극 시리즈’라고 불리는 네 편의 연작 중 두 번째 장편으로, 『X의 비극』에서 시작돼 『Z의 비극』, 『드루리 레인 최후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시리즈 내 탐정과 배경은 유지되지만, 모두 개별 사건이니 마지막 작품만 먼저 읽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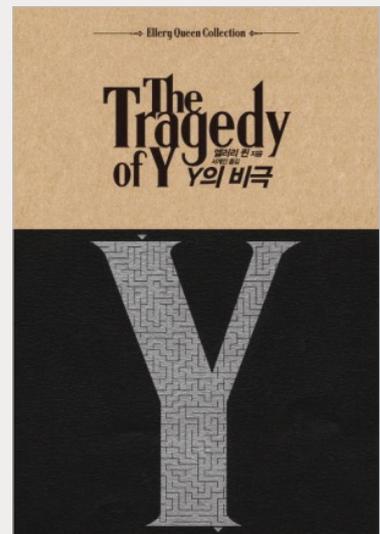
탐정 역할을 맡은 이는 은퇴한, 그리고 부유한 셰익스피어 극 전설의 명배우 드루리 레인입니다. 첫 등장 때 이미 예순이 넘는 나이로 등장했지만 그는 180cm가 넘는 훤칠한 키와 젊은이 못지않은 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후천적인 청각 장애가 있지만 독순술을 사용하여 남들과 무리 없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기고 싶을 때는 눈만 감으면 된다고 자신의 장애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죠. 오랜 세월 연극을 통해서 깨달은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아마추어 탐정입니다.

사건은 한 남자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미치광이 집안이라고 불리는 억만장자 해터가의 요크 해터가 2월 뉴욕 로어만의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시체로 발견됩니다. 그의 소지품 중에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가 있었죠. ‘나를 아는 모든 이에게, 나는 완전히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자살하는 바이다.’ 요크 해터의 장례식 이후 해터 일가의

딸, 루이자를 노리는 수상한 독살 시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달 후 폭군처럼 폭주했던 가문의 안주인 에밀리 해터가 시체로 발견되죠. 지방 검사의 요청으로 수사에 참여한 드루리 레인은 진상에 다가갈수록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고전 미스터리’의 기본은 3단 구성입니다. 보통 ‘기이한 사건 - (탐정의) 논리적인 추리 - 뜻밖의 반전’으로 짜여 있죠. 『Y의 비극』은 그 구성이 가장 완벽하게 구현돼 있습니다. 선정적인 사건, 불안한 분위기, 그림에서 튀어나온 듯한 명탐정, 논리적인 추리, 충격적인 반전과 비극을 암시하는 결말까지. 그야말로 ‘고전 미스터리’의 완성형이라 할 만한 작품입니다.

‘고전’이라는 말의 어감상, 가독성 좋은 요즘 작품들에 비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끝까지 읽어 낸 황금기 걸작의 만족감은 실로 대단합니다. 탐정의 우울한 고뇌 속에서 맞닥뜨리는 충격적인 결말. 구성 완성도와 결말의 카타르시스를 놓고 보면, 『Y의 비극』은 그 오랜 시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라는 수식어가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Y의 비극』
엘러리 퀸 지음 | 김민수 역

식탁 위의 군대 이야기

우유: 완전식품의 역사



이인이 칼럼니스트

‘외식관광뉴스’ 대표이자 ‘한국외식관광원’ 이사로 활동 중이다. 다양한 식문화와 여행 명소를 경험하며 얻은 지식을 글과 사진으로 남기고 있다. 『테마가 있는 여행 55선』(공저)를 출간했다.

인간은 생물 분류상 포유류에 속한다. 포유류는 젖을 먹여 새끼를 키우는 동물이다. 소가 새끼를 기르기 위해 먹이는 젖이 바로 우유이다. 갓난아기는 현재 몸무게에서 2배가 되려면 100일 정도가 걸리지만 송아지는 50일 정도가 걸린다. 실제로 우유는 인간의 젖인 모유보다 단백질과 미네랄의 비중이 2배 이상 높다.

우유(milk)의 어원은 ‘문질러 짜다’라는 의미를 지닌 인도유럽어에서 찾을 수 있다. 유제품(dairy)의 원형은 중세 시대의 ‘deyerie’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우유를 짜는 사람 혹은 젖소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deye’와 장소를 나타내는 접미사인 ‘-erie’의 결합으로 형성되었다. 이때, ‘deye’는 ‘daie’라는 중세 영어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빵을 굽는 사람을 뜻한다고 한다.

태어나서 첫 번째로 먹는 음식인 우유는 인류 문화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우유와 버터는 인도부터 스칸디나비아반도에 걸쳐 사는 다양한 민족들의 창조 신화에 단골로 등장한다. 특히, 구약성서에서 우유와 치즈는 풍요와 창조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성서에서 우유에 대한 대표적인 글귀는 히브리인들이 신에게 약속받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일 것이다.

보관과 유통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 신선한 우유는 오직 농장에서만 마실 수 있었다. 사람들은 우유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 굳혀 덩어리로 만들었고, 발효시켜 영양가 높고 안정적인 음식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양치기들은

우유로 버터, 크림, 치즈를 만들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인들이 남긴 치즈 제조법을 발전시켜 훈제 한 치즈인 스모크치즈와 숙성하지 않고 먹는 크림치즈, 코티지치즈를 만들었다. 또한, 치즈에 소금을 넣어 딱딱하게 굳힌 다음 가루로 내어 군인들의 휴대식량으로 활용했다고 한다.

13세기 마르코 폴로는 ‘여행기’에서 몽골계 유목민족인 타타르 병사들이 단단한 반죽 상태로 만든 우유를 양식으로 삼는다고 적었다. 병사들은 우유를 끓여서 크림 층을 걷어내고 햇볕에 말렸다. 먹을 때는 병에 물과 건조한 우유를 함께 넣어 걸쭉한 죽과 같이 만들어 먹었다. 중세의 ‘물에 타 먹는 가루우유’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유제품인 치즈를 활용한 요리로 풍뒤(fondue)가 있다. 빵이나 고기, 과일 등을 녹인 치즈에 찍어 먹는 스위스 전통 요리이다. 알프스 산악지대의 목동이 겨울이면 딱딱한 빵과 굳은 치즈를 먹기 위해 모닥불을 피워놓고 치즈를 녹이면서 빵을 찍어 먹었던 것이 풍뒤의 유래이다. 종교개혁의 열기로 가득할 때, 스위스에서도 가톨릭인 구교와 개신교인 신교 사이에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1531년에 일어난 ‘카펠 전투’이다. 이러한 종교 전쟁이 끝나고 화해의 표시로 풍뒤를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같은 식문화를 공유하는 이들은 각자가 가져온 치즈와 빵, 야채, 고기를 함께 먹으며 화합과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

19세기 말, 프랑스의 화학자 루이 파스퇴르는 낙농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이전에는 농장 가까운 지역에서만 소비될 수 있던 우유는 18~19세기에 들어 농장에서 먼 도시로 운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보관법의 부재로 우유가 오염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 결과 상한 우유로 인한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파스퇴르는 우유의 부패를 막기 위한 살균법을 개발했고 열을 가해 병원체를 죽이는 방법으로, 우유의 위생적인 유통을 가능하게 하였다.

우유는 오랫동안 완전하고 기초적인 영양식품의 동의어로 여겨져 왔다. 현재 대량생산으로 인해 우유와 유제품은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일상적인 식품이 되었다. 우유는 갓 태어난 새끼들의 유일한 음식이기 때문에 단백질, 당, 지방, 비타민 A와 B,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건강한 성인은 하루에 250ml 정도의 우유와 그보다 더 많은 양의 유제품을 섭취해도 몸에 이상이 없다고 하니, 무더운 여름, 시원한 우유 한 잔으로 건강과 활력을 더해 보길 바란다. 



동서양 그랜드투어

소설 『삼국지』에는 없는 군사들의 이야기 「적벽가」



이윤주(국립국악원 학예연구사)

국립국악고, 한양대, 영남대에서 국악 작곡을 공부했다. 국악교육, 공연기획, 학술연구 등을 담당하는 국립국악원 학예연구사로 「세종의 소리 여민동락」을 직접 기획하였다. 평상시에는 장르를 가리지 않는 관람객으로 일상의 피로함을 객석에서 치유한다.



국립민속국악원
「적벽가」中 〈세터량〉 QR 코드
(소리 윤희진, 고수 서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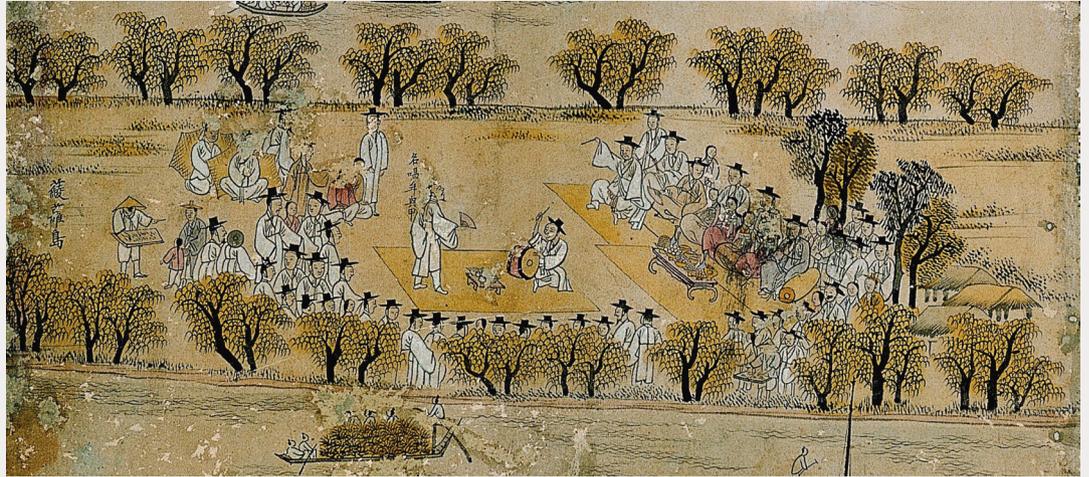


국립국악원
〈적벽가 불과 바람의 노래〉 QR 코드
(소리 박지희, 첼로 최정욱, 편곡 최정욱)

판소리는 소리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노래뿐 아니라 대사나 몸짓 같은 연극적인 요소도 선보이는 ‘소리꾼’과, 추임새를 넣으며 장단을 맞추는 ‘고수’가 음악적 서사를 엮어가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예술 장르이다. 조선 후기 서민층에서 시작된 판소리는 표면적으로는 양반이 좋아할 만한 주제를, 이면에는 평민이 좋아할 주제를 담고 있어 다양한 향유층을 가질 수 있었다. 판소리 「적벽가」도 권선징악을 내세우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권력자에 대한 풍자와 그로 인해 희생된 서민들의 아픔을 그려냈다. 아울러 양반이 사용하는 한자어나 고사, 한시를 인용하면서도 일상어, 비속어 등 평민의 말투를 사용하여 권력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풍자와 해학을 담았다.

판소리 「적벽가」는 설화를 주제로 한 다른 판소리와 달리 소설 『삼국지연의』 중 ‘적벽대전’을 소재로 전쟁을 묘사하기 때문에 가장 부르기 어렵기로 정평이 나 있다. 현재 전해지는 판소리 다섯 바탕 중 가장 나중에 창작되었기에 앞서 만들어진 판소리의 제작원리를 충실히 차용하였다. 현재 전해지는 판소리 다섯 바탕들인 「수궁가」, 「심청가」, 「춘향가」, 「홍보가」에는 남자, 여자, 아이 등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판소리 「적벽가」에는 장수, 군사들 즉 남자만 등장하는 점도 특징이다.

「적벽가」는 중국의 소설을 판소리로 만든 것으로 외래 문학의 독창적 수용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또한, 소설 『삼국지연의』는 시대를 풍미한 영웅과 호걸들의 관점에서, 판소리 「적벽가」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들었던 민초들의 관점에서 ‘적벽대전’을 바라봤다는 차이가 있다.



평양도 10폭 병풍 부분, 19세기,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모흥갑이 평양 능라도에서 판소리 하는 장면으로 모흥갑이 평양 연광정에서 판소리를 부를 때면, 그 소리가 10리 밖까지 들렸다고 한다.

『삼국지연의』에서는 전쟁을 벌이는 것을 역사 속에서 당위적인 것으로 드러내며 장수들을 전쟁 영웅처럼 멋있게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그에 따라 희생되었던 민중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적벽가」는 영웅 중 한 명인 조조를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중국 통일을 위해 힘없는 민중들을 희생시키면서 전쟁을 일으킨 사람으로 그리고 있다. 또한, 전쟁 속에서도 죽지 않는 영웅들보다 영웅을 빛내기 위한 일반 군사들을 주요 인물로 표현하며 『삼국지연의』에서 다루지 않은 민중들의 모습에 집중하고 있다.

「적벽가」의 눈대목, 즉 하이라이트는 대부분 소리꾼들이 만들어 넣은 것으로 적벽대전 전날, 동원된 군사들의 사연을 늘어놓는 〈군사 설움 대목〉으로 이는 원전소설에는 없는 부분이다. 이 대목에서 군사들은 부양해야 할 부모, 늦게 얻은 자식, 아내와 헤어지는 설움을 처절하게 토로한다. 이렇듯 「적벽가」는 전쟁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이름 없이 사라져 간 군사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부여한다.

이 밖에도 소설 『삼국지연의』에 없는 〈싸움 타령〉, 적벽대전에서 목숨을 잃는 군사들의 참혹함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죽고 타령〉, 죽은 군사들의 원혼이 전쟁에 패하고 도망가는 조조 앞에 새가 되어 나타나는 〈새타령〉, 살아남은 병사들의 처참한 모습을 한국적 사설로 표현한 〈군사 점고 대목〉을 통해 죽은 이들 뿐만 아니라 산 사람들마저 황폐하게 만드는 전쟁의 잔혹함을 보여준다.

「적벽가」에는 『삼국지연의』를 바탕으로 하는 주옥같은 대목들이 등장한다. 유비, 관우, 장비의 〈도원결의〉, 세 형제가 공명을 찾아가는 〈삼고초려〉, 하늘과 닿는 신묘한 공명의 재주를 엿볼 수 있는 〈동남풍비는 대목〉, 신출귀몰한 조자룡의 활 솜씨를 엿볼 수 있는 〈자룡 활 쏘는 대목〉 등 삼국지를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내용들이 판소리로 그려진다.

판소리 전체를 부르는 것을 완창이라고 하는데 「적벽가」 완창은 세 시간, 같은 판소리 다섯 마당인 「춘향가」는 여덟 시간이 소요된다. 우리나라의 무형유산인 판소리 「적벽가」를 감상하면서 세계 유네스코에서도 인류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판소리의 경이로움을 느껴보자. [▶](#)

영화로운 나날

픽사가 속편을 만들어야 했던 이유 「인사이드 아웃 1, 2」



박지수 영화전문블로거

8살엔 영화관을, 20살엔 영화제를 처음 가봤습니다. 25살엔 원고료를, 30살엔 출연료를 처음 받아봤습니다. 「라라랜드」의 오프닝과 「헤어질 결심」의 엔딩을, 「기생충」의 이미지와 「원스」의 사운드를 좋아합니다. 한 영화를 백 명이 본다면 백 편의 작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만의 작품을 잊지 않기 위해 네이버 블로그 '제이스의 피노키오'를 운영하며 계속 글을 씁니다.

2015년 개봉한 「인사이드 아웃」은 주인공 소녀 라일리의 머릿속 감정들의 이야기입니다. 기쁨이, 슬픔이, 소심이, 까칠이, 버럭이로 구성된 다섯 감정들은 컨트롤 타워에서 라일리의 감정을 담당하며, 감정 섬을 만드는 기억 구슬을 관리합니다. 11살의 라일리는 갑작스레 이사과 전학을 겪으며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겪은 일련의 일들로 감정 섬들이 붕괴됩니다. 기쁨이가 대처하려 할수록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국, 기쁨이는 ‘기쁨’뿐 아니라 ‘슬픔’을 포함한 감정 모두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라일리도 안정을 찾습니다.

9년 만에 속편 「인사이드 아웃 2」가 개봉했습니다. 이번엔 사춘기가 된 라일리입니다. 사춘기만큼 감정 이야기를 하기 좋은 주제는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아이스하키를 좋아하는 라일리. 친구들과 함께 고등학교 진학 전 하키 캠프를 간다는 생각에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이미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라일리는 다른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친구들에게 서운함과 아직 진학할 학교를 찾지 못한 자신이 뒤쳐진 것 같다는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라일리는 하키 캠프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이상인 선배가 있는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 가능하며 그 학교에서의 학교생활을 위해 그 선배와 더욱 가까워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감정들인 불안이, 부럽이, 당황이, 따분이가 생기고, 기존 감정들과 마찰을 빚습니다.

사실 제작사인 픽사는 1편을 만들 때만 하더라도 2편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양한 영화를 제작하기 위하여 속편은 가능한 한 만들지 않겠다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그런 픽사가 「인사이드 아웃 2」를 만든 이유는 뭘까요. 어떤 할 말이 생겨 속편에 대한 생각을 뒤집게 된 걸까요. 만든 사람은 원래 계획이 없었다지만, 「인사이드 아웃 2」를

관람한 지금, 속편은 필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편과 2편은 함께 있어야 완성되기 때문이죠. 같은 이야기를 두 작품에 걸쳐서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합니다.

1편의 중심 캐릭터인 기쁨이와 2편의 중심 캐릭터인 불안이의 행동 양식이 힌트입니다. 기쁨이는 행복한 기억이 담긴 구슬을 분류하고 저장합니다. 이미 지나간 사건을 돌아보며 어떤 사건이 핵심 기억에 놓일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불안이는 지나간 과거보다는 다가올 미래에 관심을 둡니다. 앞으로 벌어질 법한 사건의 경우의 수 모두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종합해 보면 1편은 과거에 대한 감정들의 태도를, 2편은 미래에 대한 감정들의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 속 장면으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편에서 기쁨이는 핵심 기억은 기쁨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핵심 기억 중 하나인 하키 경기 후 행가래를 받는 기억은 기쁨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과거로 돌리자, 경기 중 골을 넣지 못해 슬퍼하는 라일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감정의 인과 관계를 깨닫는 장면입니다.

2편에서는 불안이가 마치 빌런처럼 등장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나 큰 나머지, 현재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영화는 불안이를 악역의 위치에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쁨이를 유일한 정답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라일리의 새로운 자아는 불안이의 것도, 기쁨이의 것도 아닙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어떤 것입니다. ‘형성되는’ 자아에 초점을 맞춰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 엿보이는 결말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만든다는 것’은 1편과 2편의 공통 주제입니다. 1편은 모든 감정이 조화를 이룰 때 행복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2편은 여러 신념이 조화를 이뤄 자아를 형성한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래서 영화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담아야만 합니다. 과거가 현재의 나를 만들고, 미래가 현재와는 또 다른 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성장’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 「인사이드 아웃 2」가 최고의 성장 영화인 이유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성장은 아이만의 몫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른도 겪을 감정이 무궁하며 지날 경험이 무진합니다. 덕분에 소녀를 주인공으로 삼았지만 폭넓은 연령대에서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두 편의 9년 간격 동안 아이에서 어른이 된 관객도, 어른에서 더 어른이 된 관객도 성장했고 공감했을 것입니다. 



「인사이드 아웃」, 피트 다퍼



「인사이드 아웃 2」, 켈시 멘

생각하는 그림

불안한 날엔 힘껏 달려보기를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스트레스 상황과 마주합니다. 인간관계의 갈등, 업무 상황에서의 긴장 등 일상 속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는 우리의 마음을 예민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적당한 불안은 맞닥뜨린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불안은 작은 문제에도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불안 민감증과 더 나아가 치료가 필요한 병적인 상태인 불안장애로까지 악화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예민하고 불안할 때는 종종 몸의 사소한 변화 하나하나에도 지나치게 신경을 쓰곤 합니다. 몸 상태가 조금만 안 좋아도 몸 어딘가에 병이 생긴 것은 아닌가, 조금만 달려도 호흡곤란이 오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의식적으로 움직임을 줄입니다. 그래서 운동하기를 무서워하거나, 하더라도 몸에 부담이 가지 않는 가벼운 운동만을 고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캐나다의 뇌과학 연구자 제니퍼 헤이스(Jennifer Heisz) 박사는 가벼운 운동보다 오히려 고강도 운동이 불안을 낮추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 말합니다.



헤이스 박사의 연구진은 불안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1분 동안의 힘든 러닝과 1분 동안의 가벼운 러닝을 반복하는 고강도 인터벌을 12일간 진행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환자들이 느끼는 불안 심각도가 40퍼센트나 감소한 것입니다. 헤이스 박사는 실험 결과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인체를 두려움으로부터 회복시켜주는 신경전달물질이 고강도 운동에서 훨씬 많이 분비되는 데서 찾았습니다. 고강도 운동을 하며 환자들이 느낀 한계 극복의 경험이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공군인 여러분! 반복되는 업무와 고민들로 지칠 때, 나도 모르게 긴장되고 불안할 때 가끔은 아무 생각 없이 힘껏 달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저 가볍게 달리는 정도를 넘어서 최대한 오래, 몸이 땀으로 흠뻑 젖을 만큼 운동을 하는 동안 우리의 몸은 그동안의 불안함과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을 평온한 마음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운동은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입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공군인이 됩시다. 🇵🇸



그림 MAVIN(정오성) 작가

동화 같은 색채와 따뜻한 표현기법과 내용을 그리려고 노력하는 일러스트레이터, 2018년부터 MAVIN(마빈)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중이다. 세스코&무신사 협조 전시 참여, 스트레이키즈 뮤직비디오 아트워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인스타그램 @os.mavin)

We go together! Remember together! Date . 2024 / 06 / 26

올해 호국보훈의 달은 유달리 고요한 것 같습니다. 태풍 한번 지나지 않고 햇살이 내리쬐는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하늘을 보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오늘의 하늘을 지켜준 우리 선조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올 6월에는 비단 우리 선조들뿐만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전할 분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 근무하고 있는 오산기지는 공군작전사령부와 美 7공군사령부가 함께 위치해있는 연합부대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공군 부대처럼 오산기지에도 자랑스러운 선배 공군인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가 있습니다. 평소 자주 왕래하던 길에 있음에도 자주 의미를 되새기지 못했지만 6월 25일을 맞아 저는 부대원들과 함께 기념비 주변 환경미화도 하고 참배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기념비 주변을 청소하고 행사를 진행하면서 우리의 하늘을 지켜준 선배 공군인들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청소와 참배를 진행하며 여름날 뜨거운 햇빛에 전투복이 땀으로 젖어가는 동안 74년 전 같은 계절,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분투했던 호국영령들의 고행을 잠시동안 머리에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행사 후에 올해는 국군 선배님들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감사를 전해야 할 분들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같은 기지 내 美 공군들도 6·25 참전과 순직 공중근무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행사를 美 공군 6·25 참전 기념비에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며 우리나라의 하늘을 지키기 위한 외국 6·25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정신이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6·25전쟁 시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 함께 싸운 참전국이 있었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배워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 느껴본 적 없었기에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공군 장교로서 복무하며 몇 번이고 맞이했었지만 든든한 동맹국과 함께 근무하는 오산기지에서 맞이하는 이번 6·25전쟁일은 호국보훈의 달의 의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오늘날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우리 땅에서 피와 땀을 흘린 모든 이의 넋을 위로하고 이들 모두를 마음에 새겨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한미동맹의 슬로건을 빌려 외치며 이 짧고 부족한 글을 마무리합니다. "We go Together, Remember Together!" 



오늘의 감정



MEMO

헌신해준 많은 이들을
기억하자



오늘 하루 만족도



마음의 소리

김철홍

stone61**@naver.com

‘식탁 위의 군대 이야기’에서 콩의 풍부한 영양과 깊은 역사에 대해 읽으며 전쟁에서 무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식량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한 동결건조 식품 등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새삼 놀라웠습니다. 또한, 임진왜란 때 콩을 원료로 하는 두부에 대해 얽힌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어 제 상식의 크기를 키운 것 같아 즐거웠습니다.

AF

월간 『공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월간 『공군』은 다채로운 교양 코너를 기획하며 구독자 여러분의 교양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박기범

kbpark98**@gmail.com

공군 정보보호병으로서 현역 복무를 마친 후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월간 『공군』에서 공군 인공지능 신기술 융합센터가 개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감명받았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신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접목이 공군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듯 발전하고 있는 공군이 대한민국의 창공을 더 높이 그리고 더 넓게 가로지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AF

월간 『공군』에서 전하는 공군 소식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월간 『공군』 편집실은 국민들에게 공군을 전하는 매개체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춘임

leechoon12**@naver.com

안그래도 이번 여름휴가를 제주도로 떠날 계획을 하고 있던 차에 ‘제주 항공우주박물관’ 기사가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제주도에 이처럼 훌륭한 항공우주박물관이 있다니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이번 기사를 잘 갈무리해 두고 이번 제주 여행에서는 꼭 항공우주박물관에 들려서 지면 속으로 보았던 신비로운 전시물들의 모습들을 생생히 만나고 와야겠습니다^^

AF

구독자분께 도움을 드린 것 같아 뿌듯한 마음입니다. 즐거운 여행을 즐기며 시원한 박물관에서 생각과 마음의 크기를 키우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접수
방법



마음의 소리

월간 『공군』 홈페이지(afzine.co.kr) <독자의견>에 업로드
매월 15일까지 / 250자 내외 /
기념품 수령을 위한 주소·연락처 기재 필수

**책 읽는 공군
/공군인의 하루**

공백 포함 1,200자/1,100자 내외, 매월 12일까지
수신인 성명·주소·연락처 기재 후 전자우편 전송
(인트라넷: uk0319@af.mil / 인터넷: afzine@korea.kr)



구독문의 QR코드



독자의견 QR코드



월간
공군

554

발간등록번호
38-1600006-000001-06

ISSN 2383-5524
9 772383 552001 08 >